

# “인터넷에서 퍼와드립니다”

## 농업관련 인터넷 신문 “@gricuture 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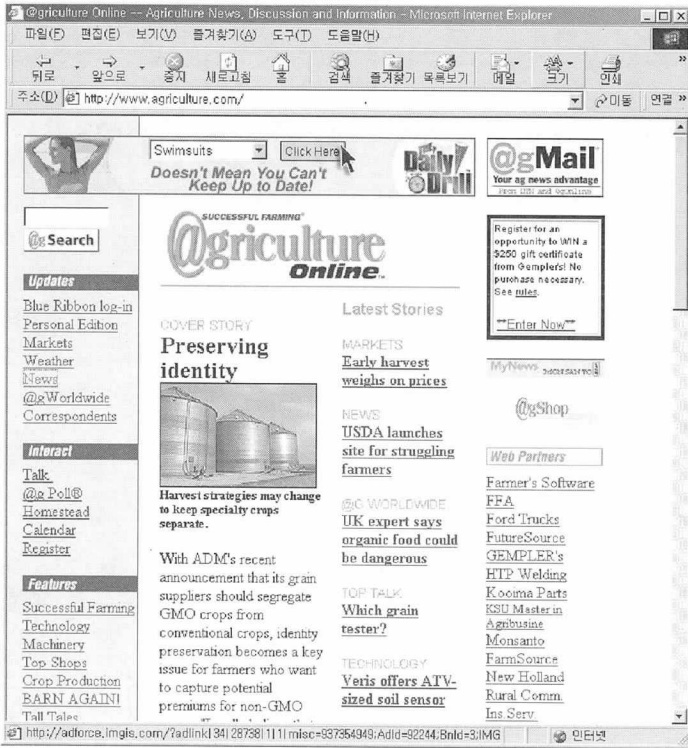
이번 호에는 농업관련 인터넷 신문 기능을 하는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즉 “@gricuture online”이다. (<http://www.agriculture.com>)

이 사이트에서는 최근의 뉴스와 농업관련 시장정보,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자가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는 상단의 @g world wide 라는 메뉴였다. 세계 곳곳에 필진을 확보한 이 사이트는 그날 그날의 각 국에서의 이슈를 실시간에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 오늘 날짜로 작성된 기사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으로 종자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농업회사들의 시장 독점을 우려하여 미국에서 몇몇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안에 대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본에 수입되는 미국 콩 가운데 유전자 처리된 분량이 크게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3분의 1에 달했다고 일본 대학 교수가 지난 8월 15일 밝혔다. 교토 대학 식품과학연구소의 무라타 고사쿠 교수는 시가현(滋賀縣)연구소와 공동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에서 수입된 콩의 3분의 1일 살충제 성분에 강해지도록 유전자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무라타 교수는 이들 콩이 두부와 식용유 제조용 등으로 수입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16일자 연합뉴스(내용 <http://www.yonhapnews.co.kr/news/19990716/0510000000199907160852040.html>)에서 일본이 96년부터 유전자 처리된 농산물 수입을 허용한 이후 매년 수입되는 콩 중 유전자 조작에 의해 생산된 콩의 비율이 증가해서 98년도에는 33%로 증가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95년분에서는 유전자 처리율이 제로로 나타났으나 96년은

이정규 교수  
(경상대학교 축산과학부)



## 법정소송으로 생명기술에 대한 논의에 불을 댕기다

**워싱턴** 지난 월요일(9월 13일) 미국의 농가 및 환경그룹 2개 단체는 주요 농업회사들이 유전자 조작 종자를 지나치게 조절하여 폭리를 취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들로부터 입은 손실 수십억 달러를 찾기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오는 12월에 연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독점금지에 대한 소송은 계속되어온 생명공학적으로 처리된 곡물에 대한 국제적인 논쟁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유럽의 소비자 그룹들은 미국에 대하여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콩, 옥수수 등의 곡물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식품에 라벨을 붙일 것을

요구해 왔다. 생산성이 뛰어나고 병해충에 저항능력이 좋은 유전자 조작 작물을 애타게 갈망했던 미국의 곡물 재배농가들은 생명공학이 적용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의 농가들은 유전자 조작 종자들을 다음에 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불공정한 처사에 대하여 불평해왔다.

일본 정부는 유전자 처리 농산물 수입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인체에 무해함이 입증된 것에만 한정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비판 여론을 의식해 식품 메이커들로 하여금 유전자 처리된 상품에 이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캐나다의 유전자 처리 농산물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수입을 규제해 현재 무역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진원지인 미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농민들에게는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슈를 유전자 조작 식품의 표시 쪽에서 유전자 조작 종자와 이들의 세계농업에서의 비중 쪽으로 이슈를 바꿀 것이다.”라고 제레미 립킨씨(환경운동가 이면서 워싱턴지역 경제동향재단 책임자)는 런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재단과 전국 가축농가 연합은 수십개의 전세계 농가 단체들과 함께 미국의 소송과 다른 나라들에서의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립킨씨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소송에서는 거

대 농업회사인 아쳐 대니얼스 미드랜드사와 사기업인 카길사 뿐만 아니라 몬산토사, 듀폰사, 제네카그룹, 노바티스 등을 포함한 모든 메이저 종자회사들로부터 손해를 입은 수십억 달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번 소송건에 대하여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나 종자사업은 독점이 아니라 경쟁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파이오니어 하이브리드 인터내셔널사의 대변인은 “우리는 옥수수에 대하여 42%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매년 경쟁을 해야 하며 농가들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비록 계획하고 있는 소송의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개요 정도로 머물고 있지만, 미국 쪽 단체들은 상업적 종자사업에 대한 소유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한다. 립킨씨에 따르면, 십여 개도 되지 않는 회사들이 전세계의 유전자 조작 종자의 대부분을 독점하여 판매하고 있고 이들이 소규모의 경쟁회사들을 빠른 속도로 사들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두 단체는 또한 종자회사들이 유전자 조작 종자들을 농가들이 다음 봄에 재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특허권의 발동을 중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요구는 개발도상국 가들의 가난한 농가들에게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그는 말한다.

국제식품정책연구원장인 핀스트럽 안데르센씨에 의하면 종자회사들은 이미 유전자 조작 종자들을 개발하는데 투자한 수백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방법들을 주저하지 않고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들은 특별한 형질 즉 병해충을 쫓아버리거나 가뭄에 강한 형질을 발현 시키려면 특정 화학물질을 농가가 구입해서 그 종자를 처리해야하는 그런 유전자 조작 종자를 개발하고 있으며, 만약 그 종자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원래의 특성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농가에는 더 나쁠 것은 없지만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안

데르센씨는 주장한다.

이들 단체들의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독점방지 변호사 마이클 호스펠드씨는 “우리는 사실을 확대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들 종자회사들 처럼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항상 잠재하고 있을 때만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반독점 소송의 제기는 11월 말경에 시애틀에서 있을 WTO와 시기적으로 맞물리게 될 것이다. 정부의 수반들과 노업관련 장관들은 정부가 지불하는 곡물생산 보조금과 식품안전 표준 및 생명공학의 영향 등에 관하여 새로운 무역 라운드를 열기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의 상태로 농가들이 유전자 조작 종자를 채택하게 되면 향후 5년내에 미국 농산물 수출물량의 거의 전부가 대량생산되도록 유전적으로 변형되거나 합성된 것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미국의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또한 종자산업에 있어 집중현상을 우려했던 농가의 의견이 의회에도 전달되었다. 미네소타주 민주당원인 폴 웰스톤씨는 수익이 5천만 달러 이상을 올리는 농업기업들간의 합병을 향후 1년간 금지할 것을 청원하는 법안을 기초하고 있다. 인터뷰에서 그의 관심사항은 곡물, 축산 및 종자 분야에서의 농업 사업체들의 급속한 합병으로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항상 존재한다는데 있다.

“이것은 유일하게 살아남는 종자회사로부터만 종자를 구입해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수많은 농가들의 관심사항이며, 또한 농가들은 자신들이 사육한 가축을 하나의 회사에만 출하하기를 원치 않으며, 그들이 생산한 곡물을 한 회사에만 팔기를 원치 않는다.”고 농업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차드 스테키씨는 말하고 있다. **양동**

